

뉴스홈 | 최신기사

마러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 속속 집결...외교전도 긴박

송고시간 | 2022-02-07 13:49

이의진 기자
기자 페이지러, 우크라 접경 3곳 병력 증파 포착...미 공수사단, 폴란드서 집결중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 기대거는 우크라...프·독 정상도 분주

벨라루스 도착하는 러시아군 소속 SU-35S 전투기

(벨라루스 EPA=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벨라루스의 군 기지에 러시아군 소속 수호이(SU)-35S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판매 금지]. 2022.1.28 knhkn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속속 집결하면서 전쟁 발발 위기가 점증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상업위성 업체 맥사(Maxar)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50km 이내 세 곳에 무장과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10일부터 진행될 러시아-벨라루스군 간 연합훈련이 명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CNN은 전했다.



CNN 등은 훈련 장소인 벨라루스 남부 루니네츠 내 비행장에는 대공 방어시스템인 S-400과 전투기 Su-25 10여대 등이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루니네츠에 이런 무장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루니네츠에서 수백km 떨어진 두 곳에서도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남동부 레치차 지역에는 탱크, 곡사포를 포함해 기동 전투 차량이 배치돼 있으며,

1010회
모토당첨결과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막사 등 야전 숙영 시설도 설치되고 있다.

레치차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25km 떨어진 옐스크 인근에도 단거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새로 배치됐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는 옐스크에 3개 이상의 최첨단 포병부대인 대대전술단(BTG) 소속 분대들이 주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드리 파루비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어떤 도시든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20만 병력이 나라 전체를 침공할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면서도 수도 키예프나 일부 도시 정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유럽행 수송기로 걸어가는 미군 병력

(포트 브래그 AFP=연합뉴스) 동유럽으로 파견되는 미군 병력이 3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기지의 군 비행장에서 수송기에 오르고 있다. 미 2022.2.4 jsmoon@yna.co.kr

미국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에 약속했던 동유럽으로 추가 파견 병력을 현지로 속속 보내고 있다.

6일 AP통신은 이날 수십명의 미군 병력과 무기가 C-1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남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82공수사단 여단전투단의 일부 인원이 도착한 데 이어 두 번째 미 병력이 합류한 것이다.

앞으로 며칠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총 1천700명가량의 미군 병력이 폴란드에 배치된다.

이번에 폴란드 파견되는 병력은 지난 2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병력 3천명의 일부다.

동유럽에 추가 배치된 미군 병력은 일단 미군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대응군을 가동할 때 지원에 나서게 된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현재 각각 4천명과 900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이들 병력은 지난달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천500명과는 별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제국을 재건하려는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최고의 대응책은 이 같이 연대해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군의 도착을 반겼다.



달신을 위한 온정의 마음,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연합훈련서 다연장 로켓 발사하는 러시아-벨라루스군

(브레스트스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브레스트스키 사격 훈련장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2022.2.4
sungok@yna.co.kr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외교전도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터키 정상과 잇따라 대화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쟁 위기의 당사국으로 외교적 해결이 간절한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4개국이 참여한 회담을 일컫는다. 노르망디 형식 정상 회담은 2019년 12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들 4개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한 후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또 4개국이 2주 안에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도 사태 해법을 내보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7일 러시아 모스크바, 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 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쉬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병력의 단계적 축소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하는 독일 정상

마스크만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 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 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46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 "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 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 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는 7일 워싱턴DC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 지난해 12월 취임 후 두 달 만이다.

유럽연합(EU)의 주도국인 독일 정상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터다.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 대러 제재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숄츠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마크롱 대통령보다 적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실종됐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숄츠 총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신뢰 회복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pual07@yna.co.kr



유튜브로 보기

🔗 관련기사

準동맹 수준으로 묶인 중러, 우크라이나 공조 주목
동유럽 추가 파견 미군 병력, 폴란드 속속 집결
'백척간두' 우크라이나, 전쟁 저지에 '필사작'
"러, 우크라이나 접경 벨라루스 3곳에 군병력 증파"
우크라 위기 '해결사 자처' 마크롱...존재감 없는 숄츠
홍콩 언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 중국"
우크라 전 국방 "러시아 전력, 수도 키예프 충분히 점령"
美·佛 정상 통화..."우크라 사태 외교적 해결·억제 위해 노력"(종합)
美안보보좌관 "올림픽 끝나기 전 러의 우크라 침공에 대비해야"(종합)
루카센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몰아넣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7 13:49 송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열쫓쫓... 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 장갑차...美, 꺼쥔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간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계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계관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